

“WBC 우승하고 마운드에 태극기 꽂겠다”

‘호랑이 3인방’ WBC 출사표



WBC(월드베이스볼 클래식)의 해인 2013년 KIA의 국가대표 3인방 윤석민·이용규·서재응이 WBC 우승과 V11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악바리’ 이용규

이용규(28)에게 국가대표는 자부심이다. 태극마크를 달고 금메달도 목에 걸었고, 병역혜택도 받았다. 몸을 사릴 수도 있고 성적에 대한 압박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자리지만 이용규에게는 가슴 벅찬 자부심이다.

지난 대회에서 이용규는 헬멧 투혼을 했다. 빈볼성 타구에 머리를 맞기도 했고, 도루를 하다 헬멧이 깨지기도 했다

“이번엔 방망이로 뭘가 보여주겠다”

만 이용규의 손은 끝까지 베이스를 지켰다. 부상투혼에도 일본에 우승을 내준 이용규는 끝내 은메달을 목에 걸지 않았다.

이용규는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대표팀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 자부심이고 영광이다. 베이징 올림픽 일본과의 준결승은 내게 잊지 못할 순간이다. WBC에서 도루하다가 헬멧이 깨졌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며 “지난 대회에서는 생각보다 타격이 좋지 못했다. 이번엔 타격에서 성적을 내야 할 것 같다. 1·2회 대회 때 성적이 나면서 기대치가 높다. 부담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막상 큰 대회를 나가면 한국선수들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충분히 4강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용규가 보는 서재응과 윤석민은 까다롭고 실력 있는 투수다.

이용규는 “두 선수 모두 까다롭다. 재응이 형은 경험이 많고 구질이 다양하다. 석

영광의 자리에 호랑이 3인방이 함께 한다.

2013년은 WBC(월드베이스볼 클래식)가 열리는 해이다. ‘호랑이 군단’의 핵심 서재응·윤석민·이용규는 한국을 대표해 세계 야구팬들의 이목이 쏠리는 그라운드에 오른다. 다시 찾게 된 WBC 그라운드, 그래서 이들에게 2013년은 더욱 특별하다.



“세계의 강타자들 칼날제구로 찌른다”

‘말형’ 서재응

서재응(36)에게 태극마크는 영광이다. 야구팬들에게 국가대표 서재응은 ‘태극기’다.

2006년 빅리그에서 뛰던 서재응은 초대 대회에서 태극 마크를 달고 한국의 4강에 함께 했다. 속적이자 난적, 일본과의 8강전에서 감격의 승리를 거둔 뒤 서재응은 에인절스 스타디움 마운드에 태극기를 꽂았다.

야구 강호 일본이 고개를 숙인 이날 야구 중추국 미국에 휘날린 태극기는 국민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세월을 뒤로한 칼날 제구, 노련함으로 서재응은 다시 또 태극기를 가슴에 품었다.

서재응은 “즉흥적으로 나온 세리머니였다. 운동할 때만름은 그랬던 것 같다. 즐겁게 유패하게 해왔다. 이번에는 후배들이 알아서 세리머니를 하겠지만 꼭 우

승하고 다시 태극기를 꽂고 싶다”고 말했다.

이용규·윤석민을 적으로 만난다면? 역시 어려운 상대라는 것이 서재응의 얘기다.

서재응은 “같은 팀으로서 이용규를 많이 알고 있지만 잘 모르는 상대로 만나다면 부담을 많이 느꼈을 것이다. 장타 위주의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몸쪽 피칭을 하면서 상대했을 것이다”며 “윤석민은 탑 클래스 투수기 때문에 타자들에게는 까다로운 승부가 될 것이다. 상대팀이었다면 타자들에게 직구 타임으로 슬라이더를 노리라고 조언을 해줬을 것이다”고 말했다.

후배들이 멋있어 보일 때는 언제일까?

서재응은 “용규는 항상 멋있다. 매게임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선수다. 어떻게 매게임, 매타석에서 저렇게 열심히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석민이는 에이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에이스라는 각오를 하고 나갈 때, 에이스 역할을 해야 하는 타이밍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멋있게 보인다”고 언급했다.

고참 선배답게 후배들에 대한 덕담도 잊지 않았다.

“FA를 앞두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부상 없이 잘하면 좋겠다. 용규는 늘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잘 할 것이다. 다시 KIA 우승에 함께 하면 좋겠다. 석민이도 제 실력을 발휘해서 원하는 금액을 받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에이스’ 윤석민

집중력은 선수로서 가장 큰 매력이다.

윤석민은 “용규 형은 공을 잘 보고 끈질기다. 상대로 만나게 된다면 공격적인 승부를 해서 최대한 빨리 치게끔 해야 할 것 같다. 시합에 들어가면 말을 잘 안 한다. 질문을 해도 답을 안 할 정도로 게임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다. 남들보다 집중하는 모습이 보이고 승부욕도 강하다. 그게 용규형의 매력인 것 같다”고 말했다.

“태극 유니폼 입으면 내가 주인공”

대표팀 유니폼이 잘 어울리는 윤석민(27)에게 태극마크는 영광이며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자리다. 태극기가 달린 유니폼을 입는 순간엔 새옷을 입는 어린이처럼 설렌다. 파란 유니폼에 담긴 행복한 기억도 많다.

윤석민은 “1·2등을 가리기 힘든데 베이징 올림픽 준결승전과 2회 WBC 베네수엘라와의 준결승전은 야구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다”며 “올림픽에서 일본을 꺾고 결승에 올랐을 때 리커튼에서 선수들과 함께 울었다. 베네수엘라전 때는 만족스러운 공을 던졌다”고 말했다.

난적 일본과 남미 선수들을 상대할 계획도 이미 세워두었다.

윤석민은 “대회를 준비하다 보면 좋은 변화구가 보일 것이다. 남미나 미국 쪽을 상대하면 체인지업이 유용할 것이고 일본을 상대하게 된다면 슬라이더를 많이 사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용규는 투수에게 어려운 상대, 무서운

서재응과 이용규의 세리머니는 이들의 매력포인트이자 부러운 부분이다.

“사실 매일 보면 사람들이라 평소에는 멋있는 게 없다”고 웃던 윤석민은 “내가 세리머니를 하면 까불까불 보이는데 둘 다 세리머니를 자연스럽게 멋있게 잘한다. 나는 그렇게 하면 많이 어색할 것 같은데, 선수들은 역시 잘할 때가 가장 멋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상 없이 이들과 WBC 그리고 V11에 함께 하는 게 윤석민의 바람이다.

윤석민은 “불운한 투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서재응 선배는 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도 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준비하는 모습이 좋다. 올해는 꼭 10승을 이루면 좋겠다. 용규 형도 FA를 앞둔 중요한 시즌이기 때문에 부상 없이 좋은 활약을 하며 기분 좋게 한해를 마무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謹賀新年

계사년에는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바라며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건강이 항상 가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국제 보청기의 정성은 고객 만족입니다.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 (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 본 점 | 062-227-9940 | 총장점 | 062-227-9970 | 목포점 | 061-262-9200
| 장흥점 | 080-222-9975 | 서울점 | 02-765-9940 | 순천점 | 061-752-9940